

총장로 적시는 '감동 선율'

11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달빛 음악회'

'도드리' 주관...국악·재즈·클래식 등 공연

'총장로서 만나는 다채로운 공연.'
총장로 한복판에서 국악, 재즈, 클래식, 통기타, 비보이 공연 등 다채로운 장르가 어우러진 '2015 달빛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달빛음악회'는 평일 저녁 시간에 총장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11월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면 개방을 앞두고 문화 붐 조성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다.

주관 단체로는 공모를 통해 (사)장작 국악악단 도드리가 선정됐다. 총장로 이곳 저곳을 둘러본 주최측은 광주학생회관 정문앞을 공연 장소로 정했다. 학생회관 정문을 개방해 마당까지 무대로 활용하며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연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다.

공연 단체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중견 단체와 함께 새롭게 날개를 펴고 있는 신진예술 단체들을 골고루 배치했다.

13일 첫무대는 '도드리'가 장식한다. 국악가요 '꽃분네야', '배 띄워라'를 비롯해 실내악곡 '섬진강'과 '컨텐포러리 아리랑' 등을 들려준다.

이어 15일에는 강윤숙의 재즈여행과 팝핀 댄스 'Always, S'의 공연이 펼쳐진다. 강윤숙 밴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 베토벤의 '템페스트'를 비롯, 스탠다드 재즈, 퓨전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20일에는 가야금 연주단 '가연하비'와 통기타 그룹 공연이 이어지며 21일에는 도드리와 광주시청 직원들의 협연무대가 펼쳐진다. 22일에는 클래식과 해금, 판소리 공연이 열리며 27일과 29일에는 신진예술단체인 재즈 피에스타와 YHB밴드가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지는 11월 공연은 다음과 같다. ▲3일=실버악단 ▲5일=색소폰 연주단체 '사운드 오브 뮤직', 통기타 가수 정용주 ▲10일=나빌레라 무용단 ▲12일 재즈 이노베이션의 재즈 음악과 아



강윤숙 재즈 그룹



'사인 앙상블'

쟁·해금 독주 ▲17일=에듀 퍼포밍 그룹 '이끈음'과 국악 공연 ▲19일=풍물연희예술단과 광주영광원 협연 ▲24일=앙상블 92.5 Mhz ▲26일=도드리 폐막 공연. 문의 062-266-58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서구 빛고을전수관 13주년 기념 '국악 한마당'

내일 국악 수강생 발표 무대
신영희 명창 판소리 공연도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개관 13주년을 맞아 13일 오후 5시부터 특별기획 국악한마당을 갖는다.

제1부는 가야금, 대금, 해금, 장구, 고법, 민요, 판소리, 가야금병창 등 8개반 국악 문화학교 수강생들 발표 무대로 꾸며지며 제2부에서는 공로패 및 모범상패 수여 등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제3부에서는 특별 공연이 열린다. 최근 '동리 대상'을 수상한 진도 출신 신영희 명창의 판소리(사진)와 이정숙 명인의 '가야금산조'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 2002년 10월 개관한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연면적 2000㎡(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국악전용 공연



장과 국악전수실과 국악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매주 목요일 무료 국악상설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에 다양한 장르의 국악 무대를 선보이고 있으며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악문화학교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빛고을 국악전수관은 개관 이후 지금까지 1만2000여명의 주민들이 국악문화학교를 수료했으며 어린이 국악교실은 2200여명이 수료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4회 맞은 학정서예연구원 학생서예작품공모전 서예 꿈나무 요람...中·日서 109점 출품

입상작 200여점 14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전시

서예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청소년들의 한글 파괴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학정서예연구원(원장 이돈홍)은 매년 한글날을 기념해 학생서예작품공모전을 개최해 눈길을 끈다. 올해로 34회를 맞는 공모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예대회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으며 중국 조선족 및 일본 교포 청소년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지난 8월 진행된 공모에서 입상한 수상작들이 오는 14일까지 광주시립미술

관 금남로 분관에서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리아름(중국 연지 중앙소학교 4년), 김남준(광주 윤립중 3년), 김소진(춘천 유봉여고 2년) 학생의 작품 등 특선 이상 200여점이 선보인다.

이번 공모전은 20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731점의 작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중 우수상·금상 등 모두 593명이 입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중국 60점, 일본 49점 등 해외에서 총 109점이 출품됐으며 지난해 70여점 보다 약 40%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다.

학정서예연구원은 지난 9월 시립미

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입상 학생 및 지도교사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한편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

한편, '전국학생서예작품공모전'은 내년부터 '세계청소년서예대전'으로 명칭을 변경, 공모 대상을 전세계 청소년으로 넓히는 등 대회의 위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돈홍 원장은 "학생들의 작품 수준이 매년 발전되고 있어 한국 서예계의 전망이 밝다"며 "내년부터는 전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회를 치르는 만큼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학정 선생님 같은 훌륭한 서예가 되고 싶어요"

중국 조선족 출신 최초 대상 수상한 리아름 양

"학정 선생님 같은 훌륭한 서예가가 되고 싶어요."

학정서예연구원이 주최한 제34회 전국학생서예작품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한 중국 조선족 출신 리아름(10·초등학교학년부) 양은 앞으로 더욱 서예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회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연지(延吉) 중앙소학교 4학년 재학 중인 리아름은 올초 중국을 방문한 학정 이돈홍 선생과의 만남을 계기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당시 중앙소학교 서예교실을 방문한 이 선생이 리아름의 글씨를 보고 참가를 적극 권장한 것이다. 서예를 시작하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또래보다 훨씬 눈에

띄는 실력을 지녔다는 게 이 선생의 설명이다.

리아름은 "평소에도 글쓰기가 재미있어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붓글씨 연습을 많이 한다"며 "열심히 가르쳐 주신 지도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생활 형편상 시상식 참석이 어려웠던 리아름은 지역기업가 김봉찬 대표의 후원으로 생애 첫 광주를 방문했다.

리아름은 "어머니, 지도선생님과 함께 어제 광주에 도착했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신기한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집에 돌아갈 때까지 여가져구 구경다니며 재미있게 놀다갈 생각이다"고 즐거워했다.

"대회에 출품한 '인재는 역경 속에서 그 재능과 진가를 발휘한다'는 내용처럼



앞으로 살아갈 생각이예요. 꼭 훌륭한 서예가가 돼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 주고 멋진 붓글씨 작품도 쓰고 싶어요."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벨라루스 여성 작가 알렉시예비치 저서 2권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판매량 20배 가량 늘어

지난 8월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언론인 출신 벨라루스의 여성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선정되면서 '목소리 소설(Novels of Voices)'이라 불리는 그녀의 작품에 국내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저서 중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2권의 도서가 노벨문학상 수상

자 발표된 8일(저녁 8시) 이후부터 11일 오전까지 판매량이 20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8일 국내 출간된 도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 135권이 팔렸다.

알렉시예비치의 대표작으로 전쟁에 직접 참전한 여성 200여 명의 목소리를 엮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3040 독자 비율이 68.9%로 압도적



으로 많았다. 또한 1986년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건 이후 현재의 목소리를 담은 '체르노빌의 목소리' 역시 3040 독자 비율이 72.1%였으며, 여성과 남성 독자가 각각 52.8%, 47.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예스24는 2003년부터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책을 소개하는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아**다

이홍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 / 정은아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